

TEXTILE & FASHION TREND ISSUE



3D DIGITAL 다섯시간 감도 높은 라이브 커머스로 120만뷰 달성 '자라'의 라이브 스트리밍이 이슈가 되는 이유⁽¹⁾

글로벌 SPA 브랜드 '자라(ZARA)' 역시 중국 리테일 마켓에 접근하기 위해 라이브 커머스를 확대하고 있다. '자라'는 지난 11월 17일 슈퍼모델 티애니(You Tianyi)와 함께 중국 플랫폼 더우인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했다. 이번 '자라'의 라이브 스트리밍이 화제가 된 것은 컨셉과 그 규모 때문이다.

오픈했고, 2023년부터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다. 지난 4월부터 매월 약 40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자라'의 라이브스트리밍은 총 5시간 동안 캐워크, 피팅룸, 메이크업 공간 둘러보기, 비하인드 스토리 부가 포함된 감도 높은 스트리밍으로 차별화했다. 제품을 소개하며 빠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일반 라이브 커머스와 달리 컨셉이 있고 차별한 분위

기로 세련된 느낌을 강조했다는 평가다. '자라'는 '쇼 스타일'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차별화하고 고객의 경험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자라'는 이 날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해 50명이 넘는 전문가와 12개의 카메라를 배치했다. 그 결과 전체 시청자 수가 평균 시청조회 수가 20만건보다 6배 많은 120만건을 상회했다고 분석됐다.

3D DIGITAL 버려지는 양모를 활용하는 방법⁽²⁾

크리스틴, 양모로 3D 프린팅 기술 발명

네덜란드 디자이너 크리스티안 마인더츠마(Christien Meindertsma)가 버려지는 양모를 소재로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했다. 크리스티안은 로봇 회사 TFT와 협업으로 로봇 공학과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3차원의 양모 구조물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총 2개의 로봇이 개발되었는데, 바늘 없이 자유롭게 펠트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우봇(Wobot)과 모양에 맞게 잘라서 사용할 수 있는 블록 울(Block wool)이다. 우봇은 다른 재료나 물을 사용하지 않고 펠팅 공정만으로 입체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로봇이며, 블록 울은 양모를 다양한 모양으로 절단할 수 있는 부드러운 블록으로 바꾸는 기술이다. 크리스티안 마인더츠마는 유럽 양의 거친 양모가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점에서 착안해, 오히려 거친 양모 품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다 3D 프린팅 기술로 발전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활용해 가구, 음향 제품, 단열재 등을 비롯한 다양한 디자인 제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블록 울은 실내장식 용품에 대한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크리스티안 마인더츠마는 지난 11월 22일 런던 V&A에서 개인전 'Re-forming Waste'를 통해 최초 공개했다. 이번 전시는 오는 2024년 10월 19일까지 런던 V&A에서 계속된다.



FASHION 홍콩에서 펼쳐진 '루이비통'의 드라마틱한 런웨이⁽³⁾

퍼렐 윌리엄스의 2024 Pre-Fall 컬렉션 공개

'루이비통(Louis Vuitton)'이 지난 11월 30일 2024년 프리폴(Pre-Fall) 컬렉션을 홍콩에서 공개했다. 이번 컬렉션은 '루이비통' 남성복 CD 퍼렐 윌리엄스의 두 번째 패션쇼로 해상 테마의 컬렉션에 맞춰 홍콩 빅토리아 항구를 패션쇼 장소로 선택했다. 홍콩 빅토리아 항구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탁하고 홍콩의 스타의 거리를 런웨이로 변경, 화려한 가을 컬렉션을 공개했다.

이번 패션쇼에는 한국 배우 송중기, 광동방 가수 앤슨 로, 중국 보이밴드 TNT 등 아시아 유명 셀러브리티들이 참석해 화제가 됐다. '루이비통'의 2024 프리폴 컬렉션은 '하와이에 서 홍콩까지' 여행을 주제로 펼쳐졌다. 항해에서 영감을 받은 스타일에 클린한 실루엣과 레트로 감성이 더해졌으며, 다양한 프린트 활용이 돋보였다. 스트라이프 슈트, 세일링 재킷, 피셔맨 스타일 샌들, 열대 꽃무늬 프린트를 착장한 스타

일링에 라피아 버킷 모자, 조개껍질을 손으로 수놓은 '루이비통' 기플 25백이 더해지며 컬렉션이 완성됐다. 선원 모자를 쓴 음악가들이 우쿨렐레를 연주하고 모래로 뒤덮인 캐워크와 파도를 보여주는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실제 '항해'를 경험하는 순간을 연출했다는 평가다. 특히 하늘에 드론으로 수놓아진 'LVERS' 로고가 쇼의 대미를 장식했다.



FASHION 패션 브랜드가 한남동을 주목하는 이유⁽⁴⁾

쇼핑과 문화예술, 카페 한 상권에서 해결

서울 용산구 '한남동'이 주요 메이저 패션 브랜드부터 온라인 핫 브랜드까지 총집결하면서 정점에 달하고 있다. '디젤', '헌터', '르메르' 등이 첫 대형 플래그십스토어를 한남에 오픈했고, '마르디 메크르디', '마리떼 프랑수와 저버' 등 핫 브랜드들은 1호점, 2호점, 3호점까지 한남동에 밀집시켰다. 쿠시먼웨이크필드코리아는 '2023 서울 가두상권 보고서'를 통해 한남동이 서울 6대 상권(명동, 홍대, 한남 이태원, 청담, 가로수길, 강남) 중 공실률이 가장 낮게 조사됐다고 밝혔다. 기존 블루스퀘어, 리움 미술관 등의 문화예술 공간에 카페거리, 쇼핑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들에게 K-패션 브랜드를 쇼핑할 수 있는 대표 쇼핑 코스로 부상하면서 그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다. '마르디 메크르디'는 기존 1, 2호점에 이어 최근 '마르디 메크르디 레브레' 아동복 매장을 오픈했고, 연말에 지하 1층~4층 규모의 복합공간을 오픈할 계획이다. '마리떼 프랑수와 저버'도 최근 2호 매장이자 대형 플래그십스토어로 '빌라드마리떼 한남'을 오픈했다. 3층 규모로 오픈한 '빌라드마리떼 한남'은 여성, 남성, 키즈, 액세서리 등 모든 카테고리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매장은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브랜드 여정을 고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인테리어 방식을 선택한 것이 눈에 띈다.



TEXTILE '망고', 2024년 재생 면 활용한 의류 제품 출시⁽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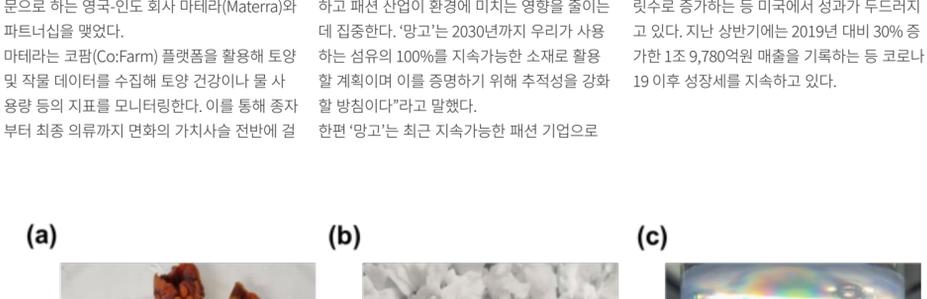
2030년까지 의류 소재 100% 지속가능한 소재로 대체



SPA 브랜드 '망고(MANGO)'가 지속가능성 전략의 일환으로 재생 목화 컬렉션을 출시한다. '망고'는 최근 재생면화 재배 및 공급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는 영국-인도 회사 마테라(Materra)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마테라는 코팜(Co:Farm) 플랫폼을 활용해 도양 및 작물 데이터의 수집과 토양 건강이나 물 사용량 등의 지표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종자부터 최종 의류까지 전과정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완전한 추적성을 보장해준다. '망고'의 지속가능성 및 소싱 담당 안드레 이사는 "우리는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패션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데 집중한다. '망고'는 2030년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섬유 100%를 지속가능한 소재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추적성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망고'는 최근 지속가능한 패션 기업으로

책임과 디지털 패션 기업으로 혁신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절연체인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의 자발적 구조화를 유도해 전도성 고분자의 전기적 특성을 향상시킨 것은 구조화 효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학술적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실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며, 생체재료 분야 국제학술지인 '카보하이드레이트 폴리머'에 게재됐다.



TEXTILE '멍게'의 재발견, 군사의류 · 스포츠웨어로 활용⁽⁶⁾

광주과학기술원, 멍게 껍질로 만든 전자소재 개발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해양패기물에서 섬유를 추출해 친환경 전자소재를 개발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윤영만 신소재공학부 교수와 심봉섭 인하대 화학공학과 교수 공동연구팀이 멍게 껍질에서 추출한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와 전도성 고분자의 복합화를 통해 친환경 섬유형 유기 전기화학 트랜지스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섬유형 유기 전기화학 트랜지스터는 이온 주입을 통한 신호 변환과 증폭이 가능해 체내 이식 또는 피부에 부착해 뇌, 심장, 근육 등 다양한

생체전기 신호를 쉽게 검출할 수 있다. 헬스케어, 군사 의류, 스포츠웨어 및 패션 아이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식물에도 적용 가능해 식물의 이온 변화량 및 수분함유 상태 등 영양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차세대 스마트팜용 작물 모니터링 기술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윤영만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천연 유기물들이 이

용해 엔지니어링 고분자의 다양한 특성을 강화했다. 특히 절연체인 셀룰로오스 나노섬유의 자발적 구조화를 유도해 전도성 고분자의 전기적 특성을 향상시킨 것은 구조화 효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학술적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실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며, 생체재료 분야 국제학술지인 '카보하이드레이트 폴리머'에 게재됐다.

기사 및 사진 출처

(1) JING DAILY _ What luxury brands are learning from Zara's new China livestream concept, 23년 11월 29일
 (2) dezeen _ 양모로 3D 프린팅하는 기술을 발명한 Christien Meindertsma, 23년 11월 17일
 (3) CNN _ Louis Vuitton stages dramatic runway show in Hong Kong, 23년 12월 1일
 (4) 패션비즈 _ 한남동 상권, 패션으로 '정점' 찍었다, 23년 11월 27일
 (5) FASHION NETWORK _ Mango to offer regenerative cotton items by 2024, 23년 12월 1일
 (6) 헤럴드경제 _ "버려지는 멍게 껍질의 대변전" 친환경 전자소재 만든다, 23년 11월 21일